

영암마트, 전남대 발전기금 1000만원



(주)영암마트 김성진(사진 왼쪽) 회장이 최근 전남대 총장실에서 지병문(오른쪽) 총장에게 전남대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 상당 상품권을 전달했다.

<(전남대 제공>

신안 농업경영인연합, 사랑의 쌀 1004kg



신안군 농업경영인연합회(회장 오배택)는 최근 신안복지재단(이사장 박민서)에 지역 불우이웃을 위한 사랑의 쌀 1004kg를 전달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ee@kwangju.co.kr>

건보공단 광주동부지사 '금연실천결의대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지사장 헌명덕)는 금연분위기 확산 및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공단을 만들기 위해 최근 전 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금연실천결의대회'를 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동부지사 제공>

광주 북구 운암2동주민센터 '사랑의 훌씨' 협약



광주시 북구 운암2동주민센터(동장 김한진)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최근 북구 운암동 동주민센터에서 독거노인 돌봄·조손가정 학用品 지원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운암 2동 사랑의 훌씨'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 북구 제공>

“음악회 열고 텃밭 가꾸며 ‘함께 꿈꾸는 동네’ 됐습니다”

마을 공동체 담은 책 출간 광주 송화마을 주민협 민판기 대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편리하지만 개인주의를 확산시키고, 도시를 삐딱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메말라버린 인정을 회복하고, 사람 사는 향기를 되찾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게 마을공동체 운동의 핵심입니다.”

송화마을주민협의회는 최근 마을의 오래된 문화와 인물, 문화재와 자연환경에 관한 이야기 등을 담은 책 ‘함께 꿈꾸는 동네’를 출간했다. 이 책에는 족발 장사하는 어머니를 둘는 장애학생의 이야기부터 내 집 앞 쓸기를 4년 넘게 실천하고 있는 우리 주변 평범한 이웃들의 잔잔한 일상이 담겼다. 책을 기획해서 출간하기까지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간 취재하고 원고 작성하느라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낸 송화마을주민협의회 민판기(62) 대표. 그는 지난 6년간 광주시 남구 노대동 송화마을에서 자신과 주민들이 함께 진행했던 마을운동을 기록한 결과물을 발간할 수 있어서 가슴이 벅차 오른다고 말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생활 수준은 나아졌지만 공동체의 끈끈함은 오히려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웃사촌이란 말이 무색하게 됐죠. 이 책은 송화마을 주민들의 자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제 가족만 생각했던 주민들이 마음의 장벽을 거두면서 공동체가 활력을 되찾아 가는 과정이 고스란히 녹아 있

습니다. ‘함께 꿈꾸는 동네’라는 제목처럼 주민들이 함께 꿈꾸며 인정과 활력이 넘치는 마을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화순군 노암면 운주사가 보이는 마을에서 태어난 민 대표는 어릴 적부터 글과 음악에 관심이 많았다. 학창시절부터 건반에 소질을 보였고, 고등학교를 마친 후에는 5년간 전국 미군부대를 찾아다니며 밴드활동에 전념했다. 한한에도 조예가 깊어 지역 일간지에 6년 동안 고사성어와 관련된 칼럼을 게재했으며, 2011년에는 이 글을 모아 에세이집 ‘고사성어로 세상보기’를 펴냈다. 또한 사별한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시집 ‘꿈 길에서 만나리’도 출간했다. 현재는 이를 없는 애시들의 어학을 딴문 소설 ‘불로동 연가’ 출간을 목표로 집필 중이다.

민 대표는 글과 음악을 좋아하지만 자신의 본업은 ‘마을운동가’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09년 광주시 남구 노대동에 새롭게 들어선 송화마을에 터를 잡고 마을공동체 살리기를 시작했다. 공동체 관계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원래 거주하던 주민들과 새로 이주한 주민 간 결합이었다. 송화마을은 도시와 농촌이 혼합된 도농복합지역으로 주민 간 이질감이 커다. 이를 해소하려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연출한 동네 음악회를 개최하고, 저소득층 어린이 공부방도 열었다. 또한 마



민판기 대표가 지난 11일 광주 남구 노대동 송화마을 주민들이 함께 가꾸는 마을 텃밭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을주민들이 공동으로 텃밭을 가꾸며 돈독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1년부터 지역 주민이 취재기자로 직접 참여하는 동네신문을 발행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민 대표는 ‘함께 꿈꾸는 동네’에서 다른 우리 주변 평범한 이웃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모아 매년 책을 발간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안정적인 지원 없이 동네신문 발간하는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을공동체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포기

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가 완전히 정착되려면 마을이 활성화돼야 합니다. 주민들이 공동체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연대할 때 건강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최근 거대 자본이 시장과 자영업자들을 배제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손 놓고 정부 대책만 기다리지 말고, 서로 협력해서 방법을 모색할 때 주민도 마을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임세열기자 hot@kwangju.co.kr>

“충장로 알리기 힘이 되어주세요”

행복문화사업단, 오늘부터 시민 기금 모금

총장로를 알리기 위한 크리우드 펀딩이 시작된다. 행복문화사업단(동포대표 이준석 정선택)은 광주의 대표 거리 충장로에 담긴 추억을 담은 노래 ‘아호 충장로’를 알리기 위해 시민기금모금 계획을 16일 밝혔다.

야호 충장로는 대학가요제 출신 김유성이 작사작곡한 곡으로, 충장로에서 아름다운 무등산을 바라보며 희망찬 내일을 향해 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1만원 이상 후원자 전원을 뮤직비디오

마지막에 소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야호충장로 음반제작 및 콘서트 초청(10만원 이상), 희망자에 한해 뮤직비디오 출연기회 제공 및 뮤직비디오 시작 화면에 협찬 광고 게재(50만원 이상)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후원계좌는 우리은행 1005-802-380912 (행복문화사업단)이며 5만원 이상 후원자들에게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다.

행복문화사업단 뮤동훈 단장은 “부산은 ‘부산갈매기’로 날아가는데 호남은 언제까



지 ‘비 내리는 호남선’만 불러야 하는가 하는 문제 의식으로 ‘야호 충장로’를 기획하게 됐다”며 “모금한 돈으로 광주를 대표하는 희망찬 노래를 널리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10-2620-1438 /정세열기자 hot@

박학근 전 강원경찰청장 남부대 석좌교수에

남부대학교(총장 조성수)는 최근 박학근 전 강원경찰청장을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로 초빙했다고 밝혔다.

한국연구재단 전문경력인사 활용지원사업 일환으로 초빙된 박 교수는 일선현장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찰행정학과에서 ‘경찰 업무기획’과목을 강의하게 된다.



박 교수는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 울경찰청 감찰과, 울산경찰청 수사과장, 서울경찰청 형사과장, 강원경찰청장을 역임했고 국무총리·대통령표창·녹조근정 훈장 등을 수상했다.

지난 2013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4명을 합격시킨 남부대 경찰행정학과는 박 교수가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만큼 현장에 적합한 실무형 인재 배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체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희망농촌만들기 전진대회’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이근)는 최근 지도사업 및 여성복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령화와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날로 어려워지는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희망농촌만들기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도농교류사업전개, 식사장농사랑 범국민운동전개, 다문화가정지원 사업, 영농 및 가사도 우미사업, 농촌인력증개센터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지원장학회, 92명에 장학금 1억5천만원



(제)지원장학회는 지난 15일 남도건설 회의실에서 제22회 지원장학회 장학금 지급식을 열고 호남대 강교현씨와 설원여고 한봉양 등 대학생 49명 및 고등학생 43명 등 총 92명에게 1억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은평 남도건설 회장이 선천의 유지를 이어 설립한 지원장학회는 지난 1993년 설립된 지원장학회는 해마다 고등·대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동안 1387명에게 13억4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임동률기자 exian@

임재택씨, 한국해기사협 신임 회장 선출

한국해기사협회는 신임 회장에 임재택씨가 선출됐다고 최근 밝혔다. 부산 중구 중앙동 부산마린센터에서 열린 선거에서 임 후보는 102표(투표인원 109명, 기권 1, 무효 1) 중 64표를 득표,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임 신임 회장은 목포해양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일우해운·수일해운·한주상운 등 국적·선박관리선사 항해사와 선장으로 15년간 승선 근무했고 1995년부터 한국해기사협회에서 상무로 일했다.

임 회장은 “해기사로 승선한 경력과 협회 상무 20년의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실무에 강한 회장이 되겠다”며 “해기사의 권리 신장과 해기사협회 위상 제고를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47 FAX 062-222-4938, 222-4918

화족

▲허현권(광주 법무사)씨 장남 육군 원연준씨 장녀 지희양=22일(토) 낮12시 30분 광주 수아비스웨딩컨벤션 2층 크리스탈홀.

동창동문회

▲재광 순천 대산고등학교 정기모임=18일(화) 오후 7시 광주 북구 우산동 일천서 획집 010-3601-7701.

종친회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영암분원 정기총회=20일(목) 오전 10시30분 영암읍 궁전회관 011-618-7047.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구례분원 정기총회=19일(수) 오전 11시 구례군 분원 이화회관 010-3636-4263.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

남지원 회춘분원 정기총회=18일(화) 오전 11시 회춘군민회관 대강당 011-629-0980.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 무안분원 정기총회=18일(화) 오전 11시 무안읍 샘물식당 011-475-4989.

알림

▲가시간방문도우미사업=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등 타인의 도움이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차상위 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지원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 광주 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62-351-3029.

▲신용사회 만들기 시민연합 채무 상담=채무로 고통받는 사람과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무료)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홀트이동복지회 국내입양 가정 =“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입양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립니다.(24시간 상담가능) 홀트이동복지회 광주지부 062-227-8877.

▲무료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 이웃을 위한 연달아서 위로행사로 음향장비(앰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광주장애인인권센터 무료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인 우권의문제연구소 062-369-0420 (1577-5364).

▲습관성도박(경마, 주식, 복권, 인터넷도박, 성인오락 등)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사회복지법인 수완실버빌 노인 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 판정 1~2등급 인정받은 자, 기초생활·의료·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062-959-2340.

▲축구회원=축구를 통해서 친목 도모하고 활동할 여가운동을 하고자하는 20~50대 축구회원을 모집, 매주 토요일 오후 운암동 인조구장 010-9